

Taking God's Warning signs to Heart (Luke 13:1-9)  
하나님의 경고의 표시를 마음속에 세기다. (눅 13:1-9)

Misreading the Signs

This is now our second week in Melbourne and my wife and children are settling in and enjoying getting to know our new city. In my former life as a single man...I did get down to Melbourne on occasion and there was one such time I was attending a paediatric physiotherapy conference where I stayed in the CBD for 2 1/2 days. In the middle of those days...I came back one night to turn on the tv where I watched in horror alo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to see the evil of the World Trade Centre in NYC being attacked. At that time also, both WTC towers collapsed from the impact and fire from the hijacked planes deliberately flown into them. 2996 people were killed and more than 6000 injured. That was the immediate impact. But further to that...in August 2013, more than 1100 people who were in the immediate area at the time and consequently had been exposed to the accompanying debris were diagnosed with cancer. More than 1400 rescue workers who responded to the scene in the days and months after the attack are now dead due to the extreme exposure of the debris.

표시를 잘못 해석하다

이제 우리는 멜번에 온지 2주째가 되어가고, 제 아내와 아이들은 새로운 도시에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 싱글 이었을 때 멜번에 종종 오곤 했었는데, 한때, 소아과 물리치료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멜번 시내에 이틀 반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방문 중, 숙소에서 TV를 틀었을 때,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뉴욕시에 세계 무역 센터 빌딩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을...고의적으로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함으로, 그 충격과 화재로 무역센터 2개의 빌딩 모두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2997명의 사람이 사망하였고 6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피해였고, 더 나아가 2013년 8월에는 1100명의 사람들이 무너진 빌딩에서 나온 파편에 노출됨으로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1400명의 응급구조대원들이 엄청난 양의 건물 잔해에 노출됨으로 테러 공격 이후 몇 개월 후 사망 하였습니다.

I caught a plane flight from Melbourne to Sydney the next day and got on the train to go back to where I was living in south Sydney. As I was sitting in the train carriage, two young men got in and became the only other occupants of the carriage. The men were pleased & happy in their discussion with each other talking about the wondrous works 'allah' had done in bringing about judgement through this incident on America. The reality is that thinking that way...that when s/t bad happens it's because the person is deserving of judgement isn't particular to those two young men... Any of us who may be tempted to think we don't make similar kind of judgements need to pause and ask whether we are really that different? If someone gets sick...we can be quick to blame something the person must have done in order to contribute to a lack of health in some way. A child is having a tantrum...instead of feeling compassion for the parents, we might be more inclined to blame them for their lack of parental oversight in controlling their children appropriately.

저는 바로 다음날 멜번에서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기차로 제가 살고 있었던 시드니 남부 지역으로 갔습니다. 제가 집으로 오는 동안, 기차 칸 안에는 저와 2명의 젊은 청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알라신이 이 사건으로 미국을 심판함에 대해 만족하고 기뻐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생각, 즉 그들이 심판받을만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어난다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 두 청년들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운데, 나는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이들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가 아프다 한다면, 우리는 때로, 이 사람이 건강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속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한 아이가 때를 부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 부모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한 부모를 비난하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When we see or hear s/t that goes wrong — we can have a tendency to condemn the situation and the person in it... 'that negative circumstance has come about as a direct result of that person's incompetence or foolishness in some way.'

We can be tempted to play the judge...and when we do...it can be easy to condemn.

Is this a true Biblical perspective? Is that the way Jesus says we're to think?

In Luke's passage before us today, Jesus takes the bad things that have happened and explains to us what we're to do with them...we're to regard them as warning signs about God's coming ultimate judgement...Jesus doesn't say that people are more guilty because they've suffered a terrible death...what he does say is that we're to repent & believe. The fact is...there is both what theologians call 'natural evil' all around us...raging, unprecedented bush fires...dreadful drought... & 'moral evil' — many victims of wickedness & sin. Jesus tells us how to respond to both...let's look firstly at 'moral' evil...

우리 주변에 무언가 잘못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과, 그 상황에 연관된 사람을 비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 좋은 결과는 이 사람의 무능력 혹은 어리석음 때문에 나타난 일이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이렇게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며, 비난하기는 참 쉽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일까요? 우리가 이같이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러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이를 대해야 할 것을...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이 부르는 "자연적인 악"이라는 생각이 우리 주변에 팽창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전례 없는 산불...지독한 가뭄...그리고 윤리적악...악함과 죄의 많은 피해자들. 예수님께서서는 이 두 가지 일에 어떻게 응답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일단은 "윤리적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 Misreading God's Sovereignty over 'Moral' Evil (1-3) "윤리적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오해 (1-3절)

13:1, '(Now) there were some present at that time who told Jesus about the Galileans whose blood Pilate had mixed with their sacrifices.'

Some from the crowd mention the evil done by Pilate, the Roman Governor of Judea from 26-36AD.

Pilate for reasons not known to us sent some of his troops, right into the temple courtyard, and while the Galileans were making sacrifices, and they slaughtered them. Their blood became mixed with the blood of their animal sacrifices. These murdered Galileans were likely Jews who'd heard Jesus teach in their synagogues.

They were from the region where Jesus had grown up and commenced His preaching ministry. Surely Jesus would have had a particular interest...and hopefully a comment to help the crowd make sense of the evil.

13:1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주후 26-36 까지 유다 지방의 로마 관리였던 빌라도가 행악 악행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빌라도는 그의 군대를 성전 앞뜰에 보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학살했습니다. 그들의 피는 희생제물이었던 동물의 피와 섞이게 됩니다.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설교 사역을 시작하신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에 대해 청중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 일에 대해 언급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Why did it happen, Jesus? Must have been some great evil they'd done? But v2, 'Jesus answered, "Do you think that these Galileans were worse sinners than all the other Galileans because they suffered this way?" The crowd had misread the 'human evil'...and God's sovereignty over it... The victims must have deserved such an end. Perhaps in order to maintain God's goodness...these victims must have deserved it.

'Whenever something terrible happens to someone, there are always some people who say that it must be the person's own fault...bad things only happen to bad people. This understanding of sin and suffering was especially common in ancient Israel: "At that time it was generally accepted that whenever calamities visited people, this was proof that they were exceptionally sinful and that for this reason God allowed them to be overtaken by such disaster."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뭔가 큰 악을 행했기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2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줄 아느냐?”*

관중들은 인간의 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이 희생자들은 이러한 보응을 받을만한 잘못된 일을 행한 거야.” 아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이들은 이러한 이런 일을 받아 마땅한 것일 거야.

누군가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 잘못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이런 안 좋은 일은 나쁜 일을 행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니깐... 죄와 고통에 대한 이런 이해는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 사회에 매우 흔했습니다. 재난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마다,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 유별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생각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생각 이었습니다.

We think of Job's comforters...one of them, Eliphaz wrongly said to Job, "who that was innocent ever perished? Or where were the upright cut off?" Jesus' disciples thought the same thing when in John 9:2 about the man born blind, they asked Jesus,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They assumed, like those in the crowd that the reason victims of such human evil, were only so because God was using it to punish their own greater human evil. That has also tended to be the approach of some in Church hx who became known as 'fundamentalists'... often trying to maintain God's goodness...such folk have been quick to say that certain people are guilty of particular sins and receiving a particular judgement for those sins...but here...as for Scripture generally unless God has revealed cause & effect, Jesus warns us against such wrong thinking,

우리가 옳을 위로하러온 그의 한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는 옳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와 같은 생각 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2절에서 소경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물기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었나? 자기리이까 그 부모나이까?”* 이 청중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해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 또한 이런 식으로 재난을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말하기를 몇 사람들은 특정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특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나타내시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 경고 하고 계십니다.

v3,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Notice Jesus doesn't say the victims were innocent. But He does say that the reason they met such a terrible end wasn't because of greater guilt. The crowd had seen the sign...but in their own broken understanding, they'd misread it as being about degrees of guilt.

The bottom line that Jesus knows is that we're all guilty before God...as Paul says in Romans 3:23, 'we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서는 이 피해자들이 무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강조하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됨은 그들의 죄 때문 또한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중들은 이 표시를 보되 그들의 잘못된 이해 가운데 이러한 표시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사도바울이 3: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듯이.

Short of Jesus returning first, we are all going to die.

When we hear of moral evil around us...Jesus would have us consider 'our own imminent demise & our great need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Unless we repent, we too will perish.' Is that s/t you've done? Are you prepared to discuss the sign of God's judgement to which disasters point with non-believing family, neighbours or friends? It's the same point for 'natural evil'

예수님이 먼저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러한 도덕적 악에 대해 우리가 듣게 될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직면할 죽음과, 죄의 용서의 큰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 또한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께서 하신 행동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심판의 증표에 대해 믿지 않는 가족, 이웃, 또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연적 악도 이와 같은 요점인 것입니다.

#### **Misreading God's Sovereignty over 'Natural' Evil (4-5)**

**자연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함.**

We see from v4, when He asks about "those eighteen who died when the tower in Siloam fell on them — do you think they were more guilty than all the others living in Jerusalem?"

From terrible atrocity Jesus moves to a tragic accident. It's closer to the realm of what many call, 'natural' evil...that encompasses natural disasters like earthquakes and floods.

One thing that sets it apart from the first tragedy, it lacks the moral dimension of culpable guilt that was Pilate's in the killing of the Galileans. Yet, the speculation is the same. Was it because of their guilt that this happened? The word for 'guilty' that Jesus uses, carries the sense of being 'indebted'. Did this happen because they carried a greater debt of guilt?

우리가 4절에서 또 다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서는 끔찍한 무도함으로부터 비극적 사건으로 옮기십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자연적 악"과 비슷한 영역입니다....자연적 재해인 지진과 홍수를 망라하는...

첫 번째 비극과 구별되는 한 가지는, 빌라도가 갈릴리 인들을 학살한 것과 같이 윤리적 악의 면모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두 사건을 같은 견해 가운데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재난은 그들의 견해와 같이 재난 당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까요?

여기 4절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죄”라는 단어는, 빗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큰 죄의 빗을 져기 때문이었을까요?

The crowd saw the sign, they couldn't avoid it...but they couldn't have misread it more dangerously than they did...  
'tragic accident...but I suppose they got what was coming...there aren't any real accidents anyway...God knew what he was doing...'

I'm just glad we're not like that...and because we're not like that, we won't face what happened to them, will we Jesus...they must carry more guilt than we do?'  
v5, Jesus answer again is stark,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Notice again the precise place where Jesus disagreed with His listeners. He didn't say they were wrong to see the tower collapse as under God's control...He disagreed with their thinking that because they weren't the victims, they must have a moral superiority over those that were.

그 관중들 피해갈수 없는 표지를 보았습니다...그러나 그들은 이 표지에 대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우리는 참 그들과 같지 않아서 다행이죠...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았기에 저런 재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이러한 생각에 예수님께서서는 5절에서 엄히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청중들의 생각과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망대가 무너진 것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재난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희생자들 보다 도덕적 우월감에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He turns the sign and points it right back at them.'

People all around us continue to think that bad things like accidents, illnesses, and disasters are God's punishment for greater guilt than those who seem to be free from them. People wrongly conclude that such 'misfortune is proportional to misdeeds'. It's a terribly tragic misreading of the signs all around us because it takes the heat from ourselves. Why did 250k people mainly in SE Asia and perish in the Boxing Day Tsunami of 2004? A Muslim cleric blamed it on the unfaithfulness of Muslims not praying 5 times a day in Banda Aceh. Another said it was because of the widespread tolerance of sexual perversion in SE Asia, India and Sri Lanka. Even some Christians speculated on the reason being because of a greater guilt of the many Muslims, Buddhists and Hindus who made up the majority of those killed.

우리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고와, 병, 그리고 재난과 같이 나쁜 일들은, 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운은 그들의 악행과 비례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잘못됨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기에, 우리 주변의 이러한 표지를 잘못 해석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비극입니다. 왜 2004년 동남아시아에서 박싱데이에 일어난 쓰나미로 25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였나요? 한 이슬람 성직자는 말하기를,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는 불성실한 이슬람인들 때문이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이는 말하기를 인디아와 스리랑카 등 동남아 지역에 난무하고 있는 성적 문란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몇 기독교인들조차 말하기를,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 불교, 힌두교인 들이었기에, 이들에 대한 죄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Such thinking is wrong to start with because this life is broken...some who might be guilty of great evil seem to get away with it...others less so, suffer greatly. Our world

is disordered. Justice for a time is denied and good things happen to very wicked people. It's what Asaph noted in Psalm 73 as he looked around and saw the wicked prospering.

Sometimes God brings His judgement in a direct way, but many times, He doesn't. When we see or hear of disasters, Jesus calls us all away from thinking about the guilt of others, and says that such signs rather are meant to sober us and remind us of our own guilt.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깨어진 불완전한 세상이기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우리는 때로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착하게 살아온 사람보다 더욱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세상은 매우 불공평해 보이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정의구현이 실행되지 않은 듯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기록한 것이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재난에 대해 보거나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의 죄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러한 재난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며,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표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 16th C Protestant Reformer, John Calvin said, "All the calamities that happen in the world are testimonies of the wrath of God." Not 1:1, punishment fits crime type wrath...but the great wrath that has subjected our world and everyone in it to groaning. We groan under the weight of moral evil that brought our world undone... and we dare not think that we stand to escape the cold, hard truth that judgement is coming...simply because others around us are falling.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구체적인 죄에 대한 개별적이며 직접적인 처벌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나 좀더 넓은 의미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진노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의 윤리적 악의 무게 가운데 신음합니다...그리고 넘어진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이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이 감히 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The daily news should be our call to repentance. The suffering of others must be our sobering wake up. We remain blind to the signs to our peril. The death you heard about yesterday is God's stop sign today. He calls us to stop pretending that sin is only really a problem for others. He calls us to repent...

Have you repented in the Biblical way? There are 3 elements -- confession, contrition, and change...

(그러나)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는 우리를 회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우리를 깨어 근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에 대한 징조를 보지 못합니다...어제 들은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은, 멈추라는 오늘날 하나님의 징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는 제 3자의 문제인데 하기를 멈추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회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회개하십니까? 이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고백, 뉘우침, 그리고 변화

Confession begins by knowing in our minds that we have sinned...but that's not repentance. Some of us get it wrong at that point...we can assume simply by thinking that we were wrong amounts to repentance...but that's not repentance.

The next part is 'contrition'. It's what goes on by the Spirit's power in our heart when we are convicted of sin. We feel its guilt. We want to humble ourselves & say, sorry. God grant us the grace to feel our sin that we would turn away from it...turn away from condemning others in a judgemental, harsh thought.

고백은 우리의 인식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앞으로 시작 합니다...하지만 고백만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몇몇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짐이 회개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회개가 아닙니다.

다음 부분은 뉘우침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의 질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질책을 느끼며...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죄송하다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음으로 이로 부터 돌아서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모질게 대하는 생각들로부터 돌아서게 하기위해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The third part of repentance...change. Confession, contrition...change. You can change...if you humble your heart today. Have you repented from sin & trusted Christ? 'If we truly repent, God will forgive all our sins. On the basis of the death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He will grant us full pardon of the debt we owe for a lifetime of sin that we could never repay.

But if we do not repent — if we hold on to our sins, not confessing what we have done, not being sorry, not changing our ways — we will never be forgiven. ... Remaining unforgiven before Almighty God can only mean one thing...that we too will eternally perish under His rightful wrath.

회개의 세 번째 부분은 변화입니다. 고백과, 뉘우침, 변화... 당신은 오늘날 당신의 마음을 겸손케 할 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로부터 회개 했으며 그리스도를 신뢰 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회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 의 기반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일평생의 죄 값을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음의 결과는 오직 하나입니다...그의 공의로운 진노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We are here today...none of us knows what tomorrow will bring...and so God calls us to be humble and repentant before Him. It's what Jesus reinforces in His Understanding the Times of Judgement and Mercy (6-8)

v6, "A man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and he went to look for fruit on it, but did not find any. So he said to the man who took care of the vineyard, 'For three years now I've been coming to look for fruit on this fig tree and haven't found any. Cut it down! Why should it use up the soil?'

'Sir,' the man replied, 'leave it alone for one more year, and I'll dig around it and fertilise it. If it bears fruit next year, fine! If not, then cut it down.'"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을 그의 심판과 자비의 때에 대한 이해 가운데 6-8절을 통해 더욱 강화 시켜 나가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This parable is Jesus' way of telling about the time in which we live. It's about two men; an owner and a carer and a barren fig tree. The owner looks for fruit...for 3 years in a row...nothing...& so he announces a word of judgement, 'cut it down' But the carer says, 'wait...give me one more year and I'll do my best...then if it's the

same, bring on the judgement' Judgement and mercy are given voices in the characters of the owner and the carer... i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at results in the present time that in the parable is a year that is a time before judgement... i.e. amnesty.

이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두 남성을 봅니다. 주인과, 관리자 그리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주인은 열매를 바라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만 아무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그래서 “찍어 버려라”라는 심판의 말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관리자가 말하기를 “기다려 주사 1년이라는 시간을 저에게 더 주십시오...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심판 하십시오” 심판과 자비가 주인과 관리자의 말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은, 심판과 자비의 관계의 결과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주어진 심판 전 1년이라는 시간과 같이...다른 말로 처벌 유예 기간과 같은...

In the OT, God used the 'image of the vine or the fig tree to refer to His people. In Hos 9:10, He said 'Like grapes in the wilderness, I found Israel...like the first fruit on the fig tree in its first season, I found your fathers.' In Isaiah 5:7 we read that "The vineyard of the Lord of hosts is the house of Israel.' God cultivated Israel to be a fruitful tree in His vineyard. He had every right to expect them to bear good fruit...they had the revelation of His Word & its precious promises.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심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9:10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 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의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돌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할 만하셨습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그의 존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y had the law and the prophets. They had the system of sacrifices to deal with sin...yet, as the Apostle Paul echoes in Romans 11, some of the branches of national Israel would be broken off as a result of unbelief while branches of the Gentiles would be grafted in as a result of faith in Christ. God is both Saviour and Judge. Jesus' call to us is to realise that judgement for us all is coming. Now is the time for pardon. Now is the day of saving, life-giving grace.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희생제도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바울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하듯,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동안, 나무의 가지였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의 결과로 나무로부터 잘려 나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며 심판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죄 사함 받을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이며, 새 생명의 은혜에 때입니다.

We have so much more privilege than ancient Israel – we have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Christ crucified and risen for our sins. We have both testaments of Scripture bound in single volumes in multiple English versions. We have a myriad of helpful Christian writings over 2 millennia of Church history. We have the Holy Spirit guiding and directing us. Now is the time for growth in grace, godliness, witness to non-believers...



우리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특권 가운데 있습니다 —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신. 구약이 하나로 합쳐져 우리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천년 기독교 역사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쓰인 무수한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지도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그 은혜와 경건함 가운데 성장해 나아갈 때이며, 지금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Now is also a time of great groaning pain of a fallen world...nonetheless under sovereignty. C.S. Lewis, "Pain insists upon being attended to.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s, speaks in our consciences, but shouts in our pains. It is his megaphone to rouse a deaf world." In the face of warning signs of disaster all around us...God's megaphone...the right question is not, 'did they deserve it'...but...Asking the Right Question...Taking its Answer to Heart. It's this, 'have I truly repented?' Phil Ryken: 'Perhaps He is using difficult experience to bring you to repentance. Certainly He is using His Word to fertilise your soul.'

또한 지금이 이 죄악된 세상의 고통가운데 신음할 때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고통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길 "고통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통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고통당할 때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 먹은 세계에 대하여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메게폰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재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표지를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가폰으로 말씀하십니다...이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올바른 질문은, "그들이 (이런 재앙을) 받아 마땅했는가?" 라는 질문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했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필립 라이큰이라는 분이 말하길 "아마도 그는 당신이 회개하도록 어려운 경험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비옥하게 하기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How then are you responding to His grace of salvation? The only way is to repent, believe and bear His fruit...But whatever you do, don't presume upon the patience of God. While others have perished in the day of disaster, your life has been spared. Don't let the delay of death mislead you into thinking that you will escape disaster forever. ... After that, you will face judgement. Jesus says,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perish." He couldn't be any clearer.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나요? 회개하며, 믿고, 그의 선한 열매는 맺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내심이 영원할거란 가정 하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몇 다른 사람들이 재난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을 때, 당신의 목숨은 살려지게 되었습니다..당신의 죽음의 날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재난을 영원히 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예수님께서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We will only escape not by looking at the guilt of others. But by taking the warnings around us to heart...in the time of God's patience...repent or perish.

우리가 이러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에 죄에 참견함이 아닌, 재난을 통한 경고를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하나님께서서 인내하시는 동안 회개하는 것이며, 아니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How merciful Jesus is to tell us what is coming. How gracious God is to provide the only way of escape... as He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경고하심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심이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